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강릉에서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해수부, 시·도, 연합회 회장단 등 70여명 참석



자율관리어업 규정개정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분임토의 내용의 대한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모습.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워크숍을 5월 2~3일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1층 한송홀에서 개최했다. <관련기사2면>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을 비롯, 시도 자율관리어업 업무담당자, 수산사무소 평가담당자, 자율관리어업 시도 연합회장, 자율관리어업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공동체 위원장 및 한국수

산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및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분임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KMI) 최성애 박사가 '자율관리어업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자율관리어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 거제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 해안가 정화활동 펼쳐



거제새우조망공동체가 5월 10일 관내 항포구에서 펼치고 있는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모습.

거제새우조망공동체(위원장 서경수)가 관광시즌을 맞아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안가에 버려진 폐부자 등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을 펼쳤다. 5월 10일 거제새우조망공동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날 해양환경 정화활동으로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거제시 어업진흥과를 통해 처리했다. 거제새우조망공동체는 '초록빛 바다 가꾸기'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 권역별 워크숍 본격 추진 전남권 워크숍, 5월 29~3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 권역별 워크숍이 5월 29~30일 전남권을 시작으로 본격 개최된다. 첫 스타트는 전남 보성군 다비치콘도에서 열리는 전남권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홍보영상,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 간 대화의 장 및 외부 강의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남권에 이어 △서해권(6월 11~12일,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 △남해권(6월 27~28일, 경남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 △제주권(7월 12일, 제주 미래컨벤션센터)순으로 진행된다. 동해권의 일정은 미정이다.

### 화성백미항등 어촌뉴딜300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는 5월 8일 경기도 화성시 백미항 등을 어촌뉴딜300사업의 8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촌뉴딜300사업 조감도.

화성시 백미항 등 8개소가 어촌뉴딜300사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5월 8일 경기도 화성시 백미항 등을 어촌뉴딜300사업의 8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사업규모가 크며,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8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어촌뉴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7개소와 자체 검토 3개소 등 총 20개소를 대상

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8개 대상지를 선정했다. 해수부는 8대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실, 선착장,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부처협업사업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의 8대 선도사업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백미항)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도비도항, 소난지도 포구, 난지도항)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명도, 말도, 방축도 일원) △목포시 달동(달리도·외달도 일원) △여수시 남면 안도리(안도항)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설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리(동암항, 동암마을)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일원(어달항)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p><b>어장관리 활동</b></p> <p>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p>	<p><b>자원조성 활동</b></p> <p>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p>	<p><b>경영개선 활동</b></p> <p>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p>	<p><b>질서유지 활동</b></p> <p>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p>
---	--	---	--

### 2019년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워크숍 이모저모

##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 유형별 분임토의 ... 6월 말까지 자율관리어업 규정 개정키로

이번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워크숍은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온 해양수산부에서 규정 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공동체 구성원과 사업 추진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기관·단체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5월 2일 첫째 날에는 해수부 담당

사무관의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설명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성애 박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최 박사는 자율관리어업 초창기부터 계획수립 및 평가에 참여해 온 전문가로 이 날은 '자율관리어업 혁신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를 분임장으로 참석자들을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등 4개 분임조로 편성해 자율관리어업 규정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둘째 날은 각 분임장들이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토의내용을 검토, 자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자체 평가담당자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규정 개정을 비롯,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에서 해수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모습.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임토의 결과 발표 후 김영신 과장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 모습.

### 2019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베트남

## 베트남의 젓줄, 메콩델타지역 메기양식 현장 및 수산기관 등 견학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호치민, 겐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베트남답사에는 자율관리어업 시도연합회 사무국장 13명을 포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단은 베트남의 수산물 가공 및 수출협회를 비롯, 식품 및 산업 박람회 참관, 양식생산 및 수산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먼저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수출협회를 방문, 베트남 수산물 교역동향에 대해 설명들었다. 베트남은 수출입 물량과 미래 전망을 감안할 때 우리의 중요한 수산물 교역국이다. 수산물 생산량은 700만톤 정도(어선어업 40%, 양식어업 60%)이며, 새우(블랙타이거, 흰다리새우)와 메기양식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등이며, 우리나라에는 주로 새우(냉동품)를 수출하고 있다. 팡가시우스(Pangasius)로 불리는 베트남 민물메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먹지 않지만 동남아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메기를 식료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민물메기 생산량의 90%가 베트남에서 나오며, 대부분 가공된 상태로 수출된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시청을 방문, 수산국장으로 수산현황에 대해 설명을



베트남 가공 및 수출협회 방문한 연수단의 단체사진.



베트남의 젓줄 메콩델타지역에서의 메기양식 현장에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

들었다. 베트남도 현재 주력 수산물 수출품종인 새우와 메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어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연수단은 베트남 수산기술을 선도하는 겐터대학교(수산대학)를 방문, 부학장으로부터 베트남의 양식 및 수산가공업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베트남 남서부에 위치한 칸토지



베트남 호치민시청(수산과)에서 수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는 연수단.

역 메기 양식현장을 방문했다. 베트남의 젓줄이라 불리는 메콩델타지역에서는 염분을 함유한 지형 조건으로 새우양식에 이상적이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으로 베트남의 새우와 메기양식을 선도해 오고 있다.

연수단은 마지막 날 자체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수산 현장방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경우 선진 수산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 친환경적으



메콩델타지역에서의 메기양식장.



베트남 식품 및 산업 박람회의 한국관 부스 모습.



연수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있다.

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정부 지원 없이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오징어·가자미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수산혁신 2030계획’ 따라 자원관리형으로 정책 전환 ... 6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연근해 어종의 금지체장과 금어기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지난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톤의 어획량을 보였다. 이는 1986년 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돼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오는 5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가자미 어획량이 2만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



해수부는 자원관리를 위해 오징어·가자미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사진은 울릉도 저동항에 정박해 있는 오징어 어선.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6월 30일까지로 한달 연장  
낙시 인기어종 감성돔·넙치·대문어 등도 금지체장 신설

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30% 감소하자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도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돼 어린 개체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부산·경남 지역 1월과 그 외 지역 3월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부터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강원지역 8월 1~31일, 넓미역 금어기는 제주지역 9월 1일에서 11월 31일이다.

이 외에 낙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15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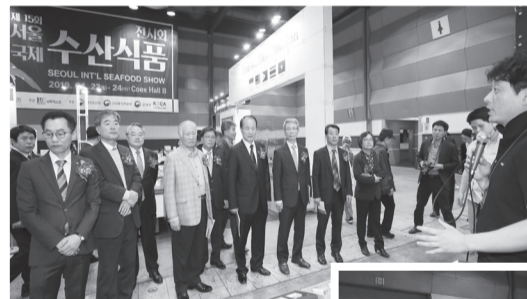
수산식품 신제품 전시 및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장  
해외바이어 초청,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도 열려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출증대를 위한 ‘제15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Seoul Int'l Seafood Show 2019)’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렸다.

한국수산회 주최, 비투엑스포(주)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80여 수산관련 업체(320여 부스)들이 참여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국내외 수산식품 및 기자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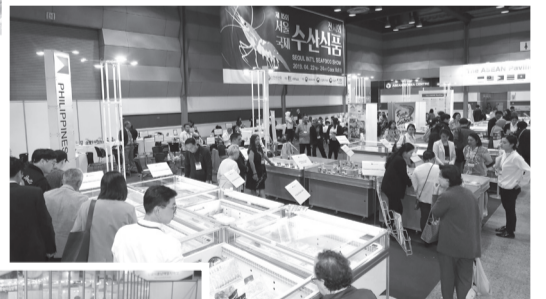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총 20개국에서 참가한 이번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는 수산관련 신제품 전시는 물론 정보교류, 무역상담 등 수산관련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외 유력바이어 60여명을 초청,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수산식품 관련 포럼 및 수산물 수출 동향 설명회 등을 마련해 수산식품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장 내부 모습. ▶

◀ 테이프 커팅 후 내빈들이 전시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전시장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상담화장에서 국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전시기간 중 부대행사로 진행된 수산관련 세미나 모습.



4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서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왼쪽 여덟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완도에서 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이 5월 10일 청정바다수도인 완도의 해변공원에서 개최됐다.

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이 5월 10일 완도 해변공원에서 「함께 Green 바다, 함께 Green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바다식목일은 바다 속 생태계 보전

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7회를 맞은 이번 기념행사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윤영일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렸다.

### 해양수산개발원,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4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과 혁신적 포용」을 주제로 한 올해 토론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12개 시도 해양수산 담당국장들과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해 해양수산 혁신사업과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 장관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조류에 적극 대응하며 바다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대답에서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선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이 참여해 미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한국수산물수출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

#### 수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수산물수출협회(회장 김영규)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하용화)가 4월 24일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산물수출협회(회장 김영규)는 4월 24일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하용화) 제21차 세계대표자회의와 연계, '수산물 수출 활성화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그

동안 수출 마케팅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축해 온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의 74개국, 146개 지회를 통한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번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는 한인 경제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정보교류를 갖는 연례행사로, 한국수산물수출협회는 식음료, 요식업 분야 회원들로 구성된 제2통상위원회 회원들과 구매상담회 및 정보교류회를 가졌다.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충남 서천 어촌뉴딜사업 현장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충남 서천 송석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5월 10일 충남 서천군을 찾아 지역 해양수산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문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서천 송석항을 찾아 서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어촌계 지역주민과도 만나 어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문 장관은 서천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아쿠아플라넷 법인)에서 바이오플라크, 순환여과양식 등 스마트

양식기술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공동체 탐방 / 인천 마시안 자오품리공동체

## ‘갯벌의 관광 자원화로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동력 삼아’



노은기 마시안공동체 위원장(인천 연합회장). 드넓은 마시안 갯벌에서 체험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드넓은 마시안 갯벌에는 체험객으로 가득 차다.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인해 하루 종일 주차장이며 인근 도로가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하루에만 집계된 체험객 수는 1,350여명. 돈을 내고 직접 체험을 하지 않은 관광객을 포함하면 가히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게 마시안 공동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전에 군마(軍馬)를 양성한 곳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마시안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용유도)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에서의 접근성

이 뛰어난데다 여타 갯벌과 달리 갯벌에 골이 거의 없어 어린이 체험장으로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로 인해 개장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누적 체험객 수가 40여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시안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로 자리 잡았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어업면허권이 소멸되면서, 그동안 갯벌에서 백합, 동죽 등 패류 채취와 빨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온 마시안 어업인들은 2013년 말 자오품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마시안 갯벌체험장 입구. 회원들이 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했다. 그동안 관리하는 사람없이 주민과 관광객이 뒤섞여 무분별하게 남획해 온 갯벌자원을 관광자원화해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는 한계에 부딪혀 정부의 자원조성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노은기(67) 위원장을 중심으로 50여명의 회원들이 조를 편성, 체험 어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극복해 오고 있다.

20~30ha의 6개 한정면허지 가운데 50여ha는 체험객뿐 아니라 주민들도 일체 채취를 금지하는 생태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한

편 나머지 갯벌도 2개씩 돌아가며 체험어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고갈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잡은 조개를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직영의 식당이 없어 체험객들이 불편해 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체험장 이외의 소득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체험장 인근에 식당을 마련하려면 건축물 허가가 필요한데, 조망권 문제 등으로 관할 행정관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노은기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니 만큼 공유수면 등을 이용한 대안 마련에 행정관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직영식당이 마련되면, 올해 신청 준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과 더불어 마시안 갯벌을 활용한 자오품리어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